



지방의회 증계석

“잘못된 예비비 사용이 관례라니”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3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원)의 교육사회위원회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과 예비비 심사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문을 연 것은 김영식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3억9천500만원 중 예비비로 500만원이 지출된 이유는 무엇이나”고 물었다.

이에 이진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긴급한 사안에 사용하는 예비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이름이 같아 혼동이 되지만 조례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양명모 의원이 지원에 나섰다. 양 의원은 “관례적으로 잘못된 예비비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의원이 질의를 하면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원칙대로 경상보조비 등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논쟁이 과열되자 이윤원 위원장은 5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다.

정회 후 김 의원은 방짜유기박물관 불용액 4억8천만원에 대해 “검토를 잘했으면 돈이 남을 이유가 없다”며 질타했다.

양 의원은 “국장은 조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관련 근거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나

와 있는 것이다. 똑바로 알고 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명모 의원은 질의기회가 오자 한층 공격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선4기 집행부가 들어선 뒤 대구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1등급공신이 문화체육관광국”이라며 “예산집행이 정확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뮤지컬페스티벌과 관련해 입장객수 부풀리기와 2개의 조직위원회로 인한 비효율성, 대구 돔구장과 관련해 WBC를 유치할 것 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

집행했다. 의회의 결정을 어기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는 예산심의 확정권에 위배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기술산업본부가 측량성과 발급을 하는 것에 대해 “측량과에서 할 업무를 왜 이 부서에서 하냐”며 “좌표설치 후 표적, 표지에 경도 위도 등을 표시한 것도 측량법 위반”이라고 비전문 부서인 신기술산업본부가 측량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비효율적인 것을 지적했다.

행정 신뢰도 하락 1등급공신이 문화체육관광국

뮤지컬 페스티벌 입장객수 부풀리기 등 지적

지게 한 점, 오페라하우스 관장직이 아직도 공석인 점, 문화행사시 초대장이 유료권의 10% 이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등 문화체육관광국의 실정을 예를 들어 가며 따져 물었다.

박돈규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사후효과 검증에 대해 이진훈 국장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의회에서 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기업지원본부의 결산 관련 심사에서 이동희 의원은 “민간 경상보조사업 중 컨텍센터 컨퍼런스 개최 비용으로 지난해 1회 추경 때 편성된 6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한 5천만원을 확정하였음에도 6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다”며 “집행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와 관련해 각 본부장들의 답변이 있었지만 이 의원은 “이 사안들은 본부장의 답변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회의장에 출석한 권영세 행정부시장은 “고용효과 큰 사업이라 수요가 넘쳤고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심의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측량업무와 관련해 권 부시장은 “신기술산업본부가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양기관의 협의를 통해 측량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일영기자
mc102@idaegu.com